논어 11편 선진 7장 · 원문·풀이

顔淵死，顔路請子之車以爲之椁。子曰：「才不才，亦各言其子也。鯉也死，有棺而無椁。吾不徒行以爲之椁，以吾從大夫之後，不可徒行也。」

독음 · 안연사 안로청자지거이위지곽 자왈 재부재 역각언기자야 리야사 유관이무곽 오부도행이위지곽 이오종대부지후 불가도행야

쉬운 풀이(요약) · 안회의 아버지가 공자의 수레를 팔아 덧관을 마련하려 하자, 공자는 자기 아들도 덧관 없이 장사했고 신분상 수레를 버릴 수 없다며 거절했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顔 얼굴 안 / 淵 못 연 연 / 死 죽을 사 사 / 路 길 로 로

請 청할 청 청 / 子 아들 자 / 之 갈 지 / 車 수레 거 거

以 써 이 이 / 爲 할 위 / 椁 덧널 곽 곽 / 曰 가로 왈

才 재주 재 재 / 不 아닐 불 / 亦 또 역 / 各 각각 각 각

言 말씀 언 언 / 其 그 기 / 也 어조사 야 / 鯉 잉어 리 리

有 있을 유 / 棺 널 관 관 / 而 말이을 이 / 無 없을 무 무

吾 자기 오 오 / 徒 무리 도 도 / 行 다닐 행 행 / 從 좇을 종 종

大 클 대 대 / 夫 지아비 부 부 / 後 뒤 후 후 / 可 옳을 가 가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